

Voil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독주회를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무대는 제가 이 훌륭한 기관에서 보낸 놀라운 3년 동안의 여정, 인내, 그리고 성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J.S. 바흐의 C단조 무반주 첼로 모음곡 5번부터 호주의 작곡가 크리스 윌리엄스의 세계 초연 작품, 그리고 리베카 클라크의 뛰어난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에 이르기까지, 이 연주는 비올라를 서로 다른 시각으로 조명하는 세 가지 작품을 탐험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곡에서는 저의 조교수님 Aidan Boase 와 함께 연주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독주회를 준비하는 시간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고, 여러분도 저만큼 이 여정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바흐가 여섯 곡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작곡하던 당시, 그는 안할트코텐 공국의 레오폴트 왕자의 궁정에서 음악 감독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레오폴트의 개신교 칼빈주의 궁정은 바흐가 이전에 근무했던 곳들과는 달리, 더 단순한 양식의 교회 음악을 선호하였고, 성스러운 전례 음악에 중점을 두지 않아, 바흐는 기악과 세속적인 성악 음악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섯 곡의 무반주 모음곡은 바흐가 첼로라는 악기를 솔로 악기로서 탐구한 시도로, 당시 첼로는 아직 솔로 악기로서 발전 초기 단계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작품들은 첼리스트와 비올리스트들에게 기초적인 레퍼토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모음곡은 서로 다른 조성으로 쓰여, 고유의 분위기를 전달하며, 서곡 ‘프렐류드’로 시작한 뒤 세계 각국의 춤곡들로 이어집니다. 이 중 다섯 번째 모음곡은 C단조의 색채를 통해 보다 어두운 감정의 영역을 탐험하며, 양식적으로는 매우 프랑스적인 특징을 지닙니다. 서곡은 두 부분으로 나뉘며, 첫 번째 부분은 프랑스풍 서곡 형식으로, 화려한 장식과 불균등한 ‘점음표’ 리듬이 특징입니다. 이어지는 푸가는 바흐가 즐겨 사용했던 형식으로, 다성적인 음성들이 복잡하고 풍부한 대화를 엮어내며 전개됩니다. 그 뒤를 잇는 춤곡들은 프랑스 스타일뿐 아니라 독일풍 알르망드, 스페인의 사라방드, 그리고 영국의 지그 등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모음곡 연주 이후에는 세계 초연인 크리스 윌리엄스의 ANAM Set 신작 《we have seen it rising》으로 도약합니다. 윌리엄스는 이 곡의 제목이 마셜제도의 시인이자 기후변화 운동가인 캐시 제트닐-키지너(Kathy Jetñil-Kijiner)의 강렬하고 인상적인 시 **Tell them**에서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물에 대해 말해줘/우리가 그것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았다고/모지를 넘실거리며 범람하고/바다 방벽을 넘고/우리 집을 덮쳐온다고...”

윌리엄스는 자신의 작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점점 고조되는 긴박감을 중심으로, 아름다움과 고통 사이의 긴장에서 비롯된 감정들 — 사랑, 분노, 절망 — 이 모든 것이 음악에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작품 전반에 걸쳐 우아한 음악적 시스템과 패턴이 구축되지만, 결국 압도당하고 제어 불능 상태로 빠지며, 마지막에는 상실감과 황량함 속에 끝을 맺습니다... 시는 친구들에게 간단한 요청을 전하고 있고, 저 역시 간단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를 읽어주세요.”

시와 음악은 리베카 클라크의 작품에서도 특별한 연결고리를 이룹니다. 그녀는 W.B. 예이츠, 브리지스, 데멜 등의 시에 곡을 붙인 잘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곡을 남겼으며, 그 풍부한 이미지 감각은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같은 기악곡에서도 이어집니다.

이 소나타는 클라크의 이웃 엘리자베스 스프레이그 콜리지의 후원으로 열린 작곡 콩쿠르를 위해 작곡되었습니다. 이 곡은 어니스트 블로흐의 작품과 공동 1위를 차지했으나, 결국 블로흐의 작품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셔먼과의 인터뷰에서 클라크는 자신이 직접 작곡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았고, “리베카 클라크”라는 이름이 사실 어니스트 블로흐가 사용한 가명이라는 루머까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농담으로 “앤서니 트렌트”라는 남성 필명을 사용해 발표한 상대적으로 덜 뛰어난 작품에는 오히려 더 많은 주목이 쏟아졌다는 사실은 당시의 성차별적인 시선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크는 그녀 시대를 대표하는 뛰어난 음악가이자 작곡가였으며, 이 작품은 그녀의 탁월한 재능을 잘 보여줍니다. 열정적인 Impetuoso의 도입부부터, 활기찬 Vivace, 그리고 마법 같은 Adagio – Allegro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정과 색채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악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작성자: 다니엘 유